

제4장

계시록의 서론(1:1-4)

우리는 지난 장에서 계시록의 환상들과 숫자들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본문을 살펴보자. 계시록의 서론은 이 책의 제목, 저자, 저술 배경과 목적, 책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 준다(1:1-8).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잘 드러내기 위해 서론은 계시록이 묵시문학과 예언적 요소와 서신의 형식을 갖추었다.

1. 묵시문학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1)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계시(묵시)란 ‘드러낸다, 또는 분명히 알린다’는 뜻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동안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교회에 밝히 드러내기 위해 계시록을 주신 것이다. 1절은 이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1).

이와 같이 계시록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이 계시를 요한에게 알리게 하셨고, 요한은 이 계시를 기록되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모든 교회)에 전달한 책이다.

이때 사도 요한은 ‘계시’라는 단어로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를 사용하였다. ‘아포칼립시스’는 초대교회 당시 묵시 문학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이다. 이것은 계시록이 묵시문학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콜린(J.J. Collins)에 따르면 묵시문학은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의 전개 속에 어떤 초월성이 계시록의 내용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다. 계시록에는 두 개의 초월성이 있다. 하나는 공간적 초월성이고, 또 하나는 시간적 초월성이다.

공간적 초월성이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늘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시간적 초월성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교회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복을 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에서도 지금 경험하며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 예로, 바울은 이 땅의 교회에 대해 묘사하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지금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존재’(엡 1:20)라고 말한다. 즉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은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 천상에 거하고 있는 존재라는 말이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는 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동시에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현재의 세상을 통치하며 왕 노릇하고 있다고 증거한다(계 20:4-6).

2. 예언적 요소

계시록은 또한 “예언의 말씀”(1:3)이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을 뜻한다. 즉 계시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19)고 명하셨다. “장차 될 일”은 ‘장래에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내용이다. 이 말에는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다. 하나는 “반드시 일어난다”이며, 다른 하나는 “속히 일어난다”이다.

이 땅의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 한다. “취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한다. 그래서 미래를 점쳐준다는 무속인을 찾아 그들의 미래를 물어보기도 한다. 그러나 말 그대로 예측일 뿐,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1) 반드시 일어날 일

그러나 계시록은 다르다. 계시록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반드시 일어날 일’은 교회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로 인해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상은 하나님의 재앙 심판으로 인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 시리즈는 세상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 주는 환상이다.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 기근, 역병, 자연 재해, 정신적 질환 등을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증명해 준다. 세상은 오늘날까지 셀 수 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왔고, 심한 기근으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극심한 가난과 빈곤에 시달려 오고 있다.

세상은 또한 역병이나 질병으로도 심한 고통을 당해 오고 있다.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였어도 인류는 아직도 질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게 되면, 모든 질병이 정복되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현대 의학은 어떤 질병들에

대해서는 해결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들 중에 하나는 에이즈다. 세상은 에이즈로 인해 심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다. 사스, 메리스, 코로나19 등과 같은 질병으로도 고통을 당하며 죽어간다. 자연 재해는 어떠한가? 세상은 끊임없이 지진, 홍수, 가뭄, 폭설, 태풍, 쓰나미, 산불, 화산 폭발, 환경오염, 그리고 생태계 파괴 등으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다.

세상에 범람하는 정신 질환도 마찬가지다. 인류는 옛날부터 수많은 정신 질환들, 즉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대인공포증,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불안증, 강박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성격장애, 지능 장애, 의사소통 장애 등에 시달려 오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정신 질환에 시달려 대부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죄짓는 것은 대부분 정신적 질환에서 비롯되었기에, 그러한 사람들은 처벌해서는 안되며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성경은 전쟁, 기근, 질병, 자연 재해, 정신 질환 등은 세상이 저지른 죄의 결과들이라고 가르친다.

1) 속히 될 일

또한 계시록은 ‘장래에 속히 될 일’에 대한 예언서다. 하나님의 교회는 장래에 영생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나, 사단과 그를 따른 세상은 심판 받아 영원히 꺼지는 않는 “유황불 붙는 못”(19:20, 20:10,13,14)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장래에 속히 될 일’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한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다(22:7,12,20).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벧후 3:4)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롱은 ‘속히’라는 단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해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얼마 후’, 또는 ‘몇 년 후’와 같은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다.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느브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에 대해 말씀하셨다 (2:28). ‘후일’에 일어날 일들이란 메시아의 초림으로 생겨날 일어날 일들을 말한다. 이미 ‘후일’의 일부분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약 시대에 종말의 개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때 사도 요한은 ‘종말’을 의미하는 말로 ‘속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3. 서신의 형식

마지막으로 계시록은 서신의 형식으로 쓰여졌다. 서신은 지금까지나 옛날이나 다 일정한 형식이 있다. 대부분 먼저 받을 사람, 인사말, 본문,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의 형식으로 쓰여진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의 서신 형식은 이와 반대이다. 본론을 쓰기 전에 제일 먼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 그 다음에는 인사말을 쓴다.

그래서 요한은 먼저 자신의 이름을(2), 그 다음에 서신을 받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4), 그리고 마지막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5)는 인사말로 그의 서신을 시작하였다. 이때 요한은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서신의 형식에 따라 인사말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도 추가하였다. 즉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부활하시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4)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기원의 인사를 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하나님을 “장차 오실 이”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교회에는 영원한 생명을, 사단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시기 위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다음으로 요한은 성령을 ‘일곱 영’으로, 그리고 그 ‘일곱 영’을 ‘일곱 등불’(4:5)로 묘사한다. ‘일곱 등불’은 성령을 의미한다. 스가라는 환상 속에서 일곱 등불을 가진 한 등대를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 등대를 가르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스 4장).

그리고 요한이 성령을 ‘일곱 영’으로 묘사한 것은 ‘일곱 교회’와도 연관이 있다. 예수님은 일곱 교회를 일곱 촛대로 비유하셨다(1:20). 일곱 촛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몸체인 등대에 잘 붙어있어야 한다. 등대의 역할은 기름을 각 일곱 촛대에 제공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성령의 조명과 인도와 충만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등대가 일곱 촛대에 기름을 제공하여 빛을 발하게 한다는 점에서, 성령을 의미한다. 다만 요한이 성령을 ‘일곱 영’으로 묘사한 것은 성령께서 ‘일곱 교회’를 주관하신다는 점에서 그리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묘사한다. 이것은 요한이 시편 89편을 인용하여 그렇게 묘사한 것이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먼저 나시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임금들의 머리가 되신)…궁창의 확실한 증인(충성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시 89:27,37)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묘사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분이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나신 이’로 묘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만아들이 되셨고 교회는 그 다음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이다(롬 8:29). 그리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그의 부활로 인해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증명되셨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인사말을 마친다. 바울도 그의 모든 서신에서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사람들은 대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식사하셨어요?’라고 묻는다. 영어권에서는 ‘굿모닝’으로 인사한다. 한국에서 ‘식사하셨어요?’는 과거 가난하여 배고팠던 삶에서 벗어나 배부른 삶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굿모닝’은 비가 자주 내려 우울한 영국 사람들이 햇볕 나는 화창한 날씨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유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이 땅의 성도들은 대부분 환경과 장래 문제에 대해 쉽이 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간다. 요한의 시대에도 교회는 심한 핍박으로 인해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지내야 했다. 때로는 직장을 잃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의 죄된 삶으로 참 평강과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기도 했다. 이렇게 불안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교회는 참된 안식이 필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요한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게 된 것이다.